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 4. 7.(월)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

-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 물질 등 대응역량 확보,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7.(월) 16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4.4.(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 희토류 17종 중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 7종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다만,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으며, 소량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희토류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호주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담당자	사무관	김현섭 (044-203-4913)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박현종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오정훈 (044-203-5693)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준 (044-203-4830)
		담당자	사무관	서현우 (044-203-4836)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리믹과	책임자	과 장	송영상 (044-203-4690)
		담당자	사무관	정 석 (044-203-4693)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윤용석 (044-203-5259)
		담당자	서기관	최재영 (044-203-5257)